

“세월호 빨리 인양돼 희생자들 아픔 그쳤으면”

세월호 1000일 ... 또 다른 아픔 안고 살아가는 동거차도 조광원·이옥영씨

“배(어선)에 망치도 있고 로프도 있었으니까 기울어진 배(세월호)에 올라가 유리창 깨고 줄 내려 당겼으면 한 두 명이라도 분명히 구했을 것인데... 자려고 누우면 눈에 아른거리고 그러.”

세월호 침몰사고는 단원과 학생·교사, 일반인 탑승객 등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진도 동거차도 주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참사로 기억됐다. 세월호가 섬 주변 바다에서 침몰한 지 9일로 1000일이 됐지만 2014년 4월 16일 구조작업에 나섰던 이곳 어민들은 지금도 잠 못 이루는 날이 많다. 언론과 국민은 무능했던 구조당국과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연일 쏘아대지만, 정작 학생들을 구한 어민들은 자신들을 잊고 있다.

어부 조광원(64)씨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른 오전 미역양식장을 둘러보고 집에 왔을 때 세월호가 마을 뒷산 앞바다에서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몰고 해역으로 갔다. 5분 거리였다. “공개 헬기도 떠나니고 군함도 오고, 해경도 왔다갔다하고 어수선했지만, 정부에서 총 출동하니깐 구해내겠다 하고 좀 돕다가 빠져나왔제. 근디 몇명 구하도 못했던 말을 듣고 요 동네 사람들 모두 한이 돼부렀던게”라

어선 몰고 나가 학생들 구조

나머지 학생들 못구해 한으로

희생자 가족들과 끈끈한 인연

며 가슴을 쳤다.

주민 이옥영(51)씨도 ‘그날’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선장이 그 모양이었으면 다른 누구 하나라도 ‘배에서 뛰어내려라’라고 소리쳤으면 다 구했을 것인데... 해경과 군을 조금 덜 믿고 기울어버린 배 위로 뛰어올랐다면 서넛은 구했을 것인데...”라며 한숨을 푹 쉬었다.

당시 조씨와 이씨를 포함한 동거차도 어민들은 20여척을 몰고 학생 5~6명을 구한 뒤 해경과 해군 통제에 따라 한 발짝 멀리서 지켜보다가 마을로 돌아왔다.

이씨는 특히 참사 16일째인 4월 30일 어선을 몰고 방제작업 지원에 나섰다가 주검으로 변한 단원과 남학생 1명을 수습하기도 했다. 그는 그때 단원과 학부모와 인연으로 희생자



조광원씨

가족들과도 인연을 맺었다.

세월호 인양을 두 눈으로 보고, 기록하겠다는 경기도 안산시 동거차도까지 와서 움막 짓고 사는 아빠들과도 자연스럽게 형 동생이 됐다. 마을에서 물과 반찬을 가져다주고 움막에 쌓인 쓰레기봉투를 짊어지고 내려오기도 한다. 유족 한 명이 지키는 날엔 말동무도 돼준다. 마을 앞바다에서 일어난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도 어민들은 유족만큼이나 궁금한 게 많다.



이옥영씨

배 한 척에 의지해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어민들은 평형수 부족, 과적, 화물 고박 부실만으로는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할 가능성이 작다고 여긴다. 그러면서도 “가라앉은 세월호가 올라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않겠느냐. 구멍이 뚫렸으면 뚫린 흔적이, 무언가와 충돌했다면 부딪힌 흔적이 배에 남았을 것”이라며 “어서 빨리 세월호가 인양돼 희생자들의 아픔이 그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거차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도서지역 청소년과 오케스트라 음악캠프 열어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는 최근 3박4일간 지역의 문화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4회 연세대학교와 함께하는 도서지역 오케스트라 음악캠프’를 개최했다.

음악캠프는 ‘착한예술, 문화나눔’을 주제로 2014년 1월 이후 올해 4회째 열리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공동협업사업’에 3년째 선정, 전남문화관광재단과 GS칼텍스재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재능은 있지만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 학생들이다. 여수지역 초등생과 서부권 도서지역에서 선발된 85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3박4일간 연세대 음악대학 재학생들에게 1:1 맞춤형 교육을 받고, 교수진과 전남 관악원도오케스트라 전문강사의 특강의 듣는 등 다양한 형태로 무료 음악교육 혜택을 받았다.

예울마루 관계자는 “오는 12일 지휘자 임현정씨와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신년음악회가 예정돼 있다”며 “캠프참가자들이 정상급 연주자로 성장해 예울마루 신년음악회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설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기자 chkim@kwangju.co.kr

“윤동주는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했던 ‘신앙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 음악회

6촌 동생 가수 윤행주 등 참석

“윤동주 가문의 가훈은 ‘하나님 사랑·나라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근본이 이 가훈에 나타나 있죠.”

지난 8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추모음악회’가 열렸다. 윤동주(1917~1945)의 6촌 동생인 가수 윤행주(69·사진)씨는 이날 “주일날 복간도 용정 명동교회에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모여 윤동주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윤동주 시인의 신앙 세계에 대해 “윤동주를 ‘민족시인’, ‘저항시인’이라 하지만 윤동주는 기본적으로 ‘신앙시인’이었다”며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듯 그는 서사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고 고백했다”고 밝혔다.



새에덴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인협회,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애국 시인이자 순결한 신앙인 윤동주를 추모하고 그의 생애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에서 테너 박완 교수는 소강석 목사가 작사·작곡한 윤동주 추모곡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열창했으며, 윤행주씨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내 영혼이 은총 잉여’ 등 찬양가와 ‘어제 내린 비’, ‘두 개의 작은 별’ 등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정리수납봉사단, 한부모가정 봉사활동

광산구자원봉사센터(소장 박상희) 정리수납봉사단은 최근 주거환경이 열악한 한부모가정을 방문해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정리수납봉사단은 지난해 자원센터에서 운영한 ‘누구나 공유허교’에서 ‘정리수납’ 강좌를 배운 수강생들이다. 이들은 앞서 신원마을 6단지 장애인가정을 방문해 정리수납 봉사를 했고, 이번에는 수완동캠프와 광산여성방범대와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오명봉 강사는 “어지러워진 집안이 정리수납을 통해 제 기능을 찾게 됐고 아이들이 좋아했다”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인사

◆광주시

◇3급 부이사관 전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전 임형택 ▲“ 이달주 ▲남구 부구청장 이정삼 ▲북구 부구청장 민진기 ▲국방대학교 교육과전 박남주 ▲세종연구소 교육과전 문범수 ▲비엔날레 사무처장 박흥표 ▲한전지역협력관 허익배

◇3급 부이사관 지정대리 ▲정책기획관 황봉주 ◇4급 전보 ▲군공향이전사업단장 이효상 ▲문화도시정책관 김석옥 ▲미래산업정책관 문정찬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성광 ▲“ 의사업단관 서병천 ▲법무담당관 강영숙 ▲국세규류담당관 박상백 ▲재난예방과장 김중열 ▲“ 김강산 ▲민생사법경찰과장 한상득 ▲문화예술진흥과장 최운규 ▲고령사회정책과장 정영화 ▲장애인복지과장 김오성 ▲식품안전과장 박진옥 ▲토지정보과장 정철 ▲건설행정과장 송준근 ▲도로과장 김남균 ▲청년정책과장 구중현 ▲에너지산업과장 김용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승권 ▲보건환경연

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서계원(직위승진) ▲“ 감염병연구부장 정재근(직위승진) ▲문화예술회관장 김철승 ▲푸른도시사업소장 배윤식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현중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전 이정식 ▲예산정책관 송재식 ▲스마트행정담당관 이지선 ▲관광진흥과장 류미수 ▲체육진흥과장 조만호 ▲사회복지과장 이평형 ▲환경정책과장 문병재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정식 ▲생태수질과장 김석준 ▲도시재생정책과장 강권 ▲교통정책과장 이언우 ▲대중교통과장 박갑수(지정대리) ▲행정지원과장 오재중 ▲수영대회지원과장 김용승 ▲수영대회 경기시설과장 윤광재(지정대리) ▲알자리정책과장 임찬혁 ▲민생경제과장 곽현미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김기숙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안우식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송승종 ▲“ 기술부장 송형석 ▲총합건설본부 총무부장 정관승 ▲서울본부장 김경미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전 박종호 ▲“ 송상진 ▲“ 김병규 ▲“ 김성호 ▲행정자치부 교류과전 황인찬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이병하 소장 취임

이병하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최근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APRI) 제 6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이 소장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거쳐 미국 콜로라도대(볼더캠퍼스)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GIST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로 부임한 뒤 대외협력처장 등을 지냈다.



이태호 명지대 교수

13일 전남대에서 특강

이태호 명지대 미술학과 교수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에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양성 사업단 초청으로 인문대 학술회의실에서 ‘조선 후기 전라도 땅을 밟은 두 지성, 다산과 추사 - 그들의 서화와 서화론’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동문회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총동문회(회장 박운길) 정기총회=14일(토) 오후 2시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1층 산관학협회의실 062-230-6747, 010-7637-0739.
▲광주 북성중학교 총동문회(회장 조정래)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회=14일(토) 오후 6시 고교 강당(체육관) 문의 062-523-1300.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2017년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17일(화) 오후 6시 30분 광주시 서구 리퍼스타워딩홀(구 메리이트웨딩홀 062-366-7766) 문의, 유은학원총동문회 사무국 062-361-2680.

종친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회 월례회의=10일(화) 오후 6시 도지원 3층 회의실 062-225-5636.

▲경주김씨 광주·전남총친회 정기총회=14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신안동 효창요양병원 회의실 062-510-2000.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여성주간재활프로그램=음주유해대처 및 단주법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교육실 062-526-3370.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

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광주유교대학 학생모집=1학년 신입생 50명 월·수 오후 3시30분~5시30분 교

육, 2학년 편입생 20명 화·목 오후 3시30분~5시30분 교육, 성별·학력·나이 제한 없이 유교입문학과 유교경전(사서삼경 등) 교육으로 원서접수는 2017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문의 광주유교대학 사무처 062-672-7008.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

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

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지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군부,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부음

▲윤옥주씨 별세 최관호(경철청 경무관·전 광주청 제1부장)씨 모친상=발인 10일(화) 곡성장례식장 1호실 061-362-7575.

▲조기신(전 진도군 교육장)씨 별세 영현(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장)씨 부친상=발인 11일(수) 광주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062-527-1000.

謹 삼가 故인의 冥福을 빕니다 弔	
301호 故우원자 남(여/89세) 子/子婦 : 이정철/김영화, 정현/송영숙, 정수/박영자 정남/최숙현 女/婿 : 이현숙/김정훈, 현자/김준식, 현미/박영환 •발 인 : 1월 10일 •장 지 : 화순 통복선영 •연락처 : 227-4382	402호 故전순엽 남(여/80세) 子/子婦 : 김재현, 재성/최지숙, 재대/박화영 女/婿 : 김재희/박덕영 •발 인 : 1월 10일 •장 지 : 임실호곡면 •연락처 : 227-4383
101호 故조성호 남(남/62세) 子 : 조윤희 女 : 조원미 女/婿 : 김미숙 未亡人 : 김미숙 •발 인 : 1월 10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000	102호 故남기철 남(남/69세) 子/子婦 : 남해식/이영남, 주식 女/婿 : 남주미/김처수 未亡人 : 현미 •발 인 : 1월 10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5
함께한10년.함께할100년 금 호 장례식장 062-227-4000 대표이사 구제길 www.mykumho.com	